

# 고마운 일

교육의향



정수연  
전대사대부중 교사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앉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조용한 일, 김사인)

책 이야기이다. 이 시의 '낙엽 하나'라는 시어는 '햇빛 한 줌', '바람 한 줄기', '눈 한 송이', '먼지 한 톨'로 바뀌어도 좋을 것이다. 지난 해 '광주 전남 시도민이 함께 읽는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되었던 [불편한 편의점]의 알바생 독고라는 인물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작은 위안으로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다. 그는 늘 주변 사람을 관찰하고 살핀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귀 기울인다. 그리고 가만히 이야기한다. 그 대수롭지 않은 음료 한 잔,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라고 건네는 말 한 마디가 '못 쉬던 숨을 쉬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소설 속 독고의 모습은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ㄷ그리하여 혼자자 아님을 알게 해 주는- 김사인의 시에 나오는 낙엽을 닮아 있기도 하다. 주변의 사람들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

는 눈길, 무엇이 필요인지 생각하고 따뜻한 음료 하나 건네는 사람의 손길이 절로 떠오르는 소설, 누군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선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이야기이다.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이 책은 무기력과 허무,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독고와 염여사의 마음이 씨줄 날줄로 촘촘하게 짜여있다.

이 책이 건네는 위로의 씨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청춘들을 향해 있다. 알바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거나, 돈을 벌기위해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을 노리는 청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그들의 실패는 한 개인의 안일함이나 무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이기 쉽다.

날줄의 위로는 기성 세대를 향한다.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고 어느새 마흔 중반이 되었으나 가족과 화합하지 못하고 퇴근 후 편의점에서 혼술하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중년의 직장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들 때문에 속상한 엄마가 그들이다.

또한 소설은 현실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해서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오버랩된다. 코로나가 견잡을 수 없이 퍼지던 2021년 1월, 독고는 대구로 향한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말한다. '살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 내가 속한 세상에 함께 살고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야겠다. 기차가 강을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위로를 건네던 독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치유가 되는 인물 역시 독고이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프지만, 또한 사람으로 인해 치유되는 존재이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위로를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린다. 회피하기만 했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고 현실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바야흐로 2월, 북반구의 추위를 견디며 긴 겨울을 지나고 있다. 누구에게나 온기가 필요한 시간인 것이다. 얼마 전 오랜만에 안부를 전한 지인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오랜만이예요. 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성찰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넘기는 데 힘쓰고... 그래서 연락 드리기가 힘들어요. 조만간 보았으면 합니다.'

어디선가, 무슨 이유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은 빈약할밖에. '짧은 글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 알고 있죠? 밤이 되고 바람이 엄청 차가워졌어요. 몸 조심 마음 조심하시길 바래요. 늘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기다릴게요. 편한 밤 되시길요.'

이 생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3년간 써왔던 마스크를 벗는 일이 이렇게 쉽고도 어려운 일이었는지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다. 내가 속한 세상에 함께 살고있는 그대들, 어려운 일도 많겠으나 최선을 다해 살아주어서 참 고맙다.

## 社說

### 가뭄 비상속 구멍뚫린 광주 상수도 행정

#### 정수장 고장 휴일 수도물 대란

휴일인 어제 각 가정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 시설이 고장나 광주 3개 구 지역이 단수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절약한 귀한 식수가 허무하게 낭비됐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께 덕남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공급 밸브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작업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덕남정수장으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는 서구·남구·광산구 대부분 지역에 단수조치가 이뤄졌다. 덕남정수장은 하루 평균 26만ℓ을 정수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로 보내고 있다. 정수장 시설 고장으로 인해 시설에서 관리하던 물이 이날 오전9시께부터 정수장 주변 도로로 넘쳐 흘렀다. 시는 넘쳐버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휴일 갑작스러운 단수에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각 가정에서는 욕조 싱크대에 물을 받아놓는가 하면 인근 마트에

서 생수를 대량 구입하기도 했다. 유명 커피숍은 오후 1시 이후 주문 중단을 고객에게 안내했으며 식당, 미용실 등에서는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빚어졌다. 시민들은 고장 확인 시각이 오전 6시였음에도 오전 11시 42분에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낸 당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시는 사고 원인을 시설 노후화로 추정하면서도 밸브 고장 2시간 전에 끊어진 통신망 고장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수장 밸브 고장의 원인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보수가 끝난 뒤에도 흐린 물 유입이 예상돼 불편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시는 이전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유례없는 가뭄에 시민에게 20% 물절약을 강조하던 광주시가 각별하게 관리하고 점검했어야 할 식수 공급 시설 고장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정확한 고장 원인 규명과 함께 대시민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황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 정부 지원 확대를

#### 전남 등 비수도권, 수용력 낮아

전남도를 비롯한 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수용력이 낮다고 한다.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래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2050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가 '지역'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가 탄소중립 수용력 평가 결과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남은 탈 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3가지 가운데 미래차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시나리오에서도 전남은 강원과 제주, 충남 등과 함께 대응력이 낮게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며 최적의 방법이다. 탄소는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부산물이다. 이런 탄소의 순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0(제로)으로 만들어 기후 위기를 막자는 게 '탄소중립'이다. 정부도 경제, 사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지역인 만큼,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남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조선업 등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고 혁신적 청년층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 조사에서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많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수용성이 낮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탄소중립 대응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를 위해 예산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역내 산업구조를 다각화·고도화시키는 장기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지역정책에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지도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 서석대



인문대 앞을 지나가는 중년의 교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굳게 다문 입은 어떤 고난에도 맞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예'라는 답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 것같은 분위기였다. 국문과 수업을 받진 않았지만 후배를 따라가 강의를 들은 적 있다.

87년 6월항쟁 이전이었고 독재정권의 폭력, 80년 5월항쟁 당시의 고통, 뿌리깊이 내재된 호남 차별에 대한 강의를 했던 걸로 기억된다.

그때 쯤이다. "형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1학생회관 서클룸에서 이념활동을 하던 후배였다. "무슨 책인데" "소설 '암태도' 인데요. 송기숙(전남대 국문과·1935~2021)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렇게 송기숙 교수가 쓴 소설 '암태도'와 인연이 시작됐다.

"바다는 파가운 가을 햇살을 재재받기며 팽팽하게 힘이 꼬이고 있었다/하늘도 짜지게 머물어 탕탕 마른 장구 소리가 날 듯했다/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위로는 문계구름이 한 무더기 탐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암태도 제1장 앞부분 나선 사람)"

민족주의 리얼리즘의 본령을 지켜온 송 교수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이었으며 소설 '암태도'는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담아낸 작품이었다. 송 교수는 소설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이 사건을 소설화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이 사건 자체의 극적인 발전과정도 흥미롭거나 반봉건적·반일적 순수한 민중운동이 암태도라는 작은 단위의 섬에서 또 아주 밀도있게 진행돼 민중의 의지를 관철시킨 점이 통쾌했기 때문이다. 매몰됐던 일상성에서 깨어나 자기의 삶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신선한 모습일 것이다.' 1923년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의'는 우리나라 소

작쟁의 효시로 일제강점기 대표 항일농민운동으로 평가 받는다. 지주 문제철폐의 70%~80%를 요구하는 소작료를 내리기 위해 1923년 8월~1924년 8월까지 소작인들이 벌인 소작쟁의를 소설화 했다.

문득 궁금해진다. 왜 지주들이 갑자기 소작료를 올렸을까. 일제가 1차대전 후 대공황에 직면하면서 국가가 폭락했다. 지주들 역시 경영수익이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했는데 이 대책이 지주경영 강화였으며 소작료 인상으로 나타났다. 즉 반분타조제(半分打租制)를 4대6 타조제(소작인 4, 지주 6)로 바꿨으며 잡을도조(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판단해 정하는 도조)라는 소작료 장수방법을 채택했다. 벼가 익을 무렵 눈을 돌려 보며 대략 어림잡아 수확량을 책정하는

수법이다. 이 잡을도조를 암태도 농민들은 "농민들을 잡을 도조"라고 비판했다. 암태도 농민들은 이 소작료를 다시 40%로 낮춰달라고 1년동안 항쟁했던 것. 마침내 농민들이 승리를 쟁취했으며 소작료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말 소설 '암태도'가 재출간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책을 손에 쥘 순간 '뭘 듯이' 기뻐했다.

마침 올해가 암태도 소작쟁의 발발 100주년이 되는 해다. 신안 암태도 농민들이 보여준 항쟁의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다. 1929년 나주학생운동이 일어났으며 사건 발단이 됐던 여학생 박기옥은 이후 암태도 소작쟁의를 이끈 서태석의 며느리가 된다. 그 학생운동이 80년 광주5월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정신은 당연히 계승돼야 한다. 아마추어보다 못한 작금의 국내 현실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든다. 미국 사회학자 밀즈가 말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길러 세상을 '대자적(對自的) 태도'로 통찰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할 것 같다. **박간재 전남취재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